



계절과 무관...오히려 겨울이 더 위험할 수도

+ 이모저모/ 구제역 왜 겨울에 발생했나

“구제역은 계절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겨울이 더 위험하다”.

겨울에 발생한 이번 구제역을 두고, 전문가들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계절 또는 기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의 위험도는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조인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은 “3~5월을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던 것은 과거 국내 발생이 봄철에 집중됐던 까닭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이집트,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에 아프리카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온 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활동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겨울철이 구제역 위험에 더 놓이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 과장은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구제역 바이러스 역시 열에는 취약하지만, 온도가 낮을수록 생존기간이 길어진다. 특히 소독 등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개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겨울이 구제역 취약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겨울에 바이러스가 생존해있다고 하더라도, 봄철에 다시 창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얼어서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풀리면 급속히 소멸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1월 11일



대한수의사회, 2010년 사업계획

2010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대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GDP 성장률도 4.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약품, 사료회사 등 수의관련 업계의 침체가 회복하려면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욱이 임상시장과 관련된 규제가 신설되면서 동물병원 운영 악화가 지속되면 매년 500여명의 신규수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업계의 구직난 심

화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0년, 수의업계는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대한수의사회의 2010년 계획을 통해 수의계의 앞날을 점쳐본다.

*** 핵심사업 총력**

대한수의사회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주의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 도입은 올해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된다. 현재로서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약사회와 보건복지가족부 설득이 최우선인 만큼 이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경에는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이미 도입된 데다 국내 의·치·한의·간호대에서도 시행 중인 교육평가의 수의과대학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수의학교육인증평가원 설립은 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면허상호인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수의계의 주장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를 위해 대학력皖參璿皖단체의 뜻을 모아 정부법인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교과부로부터 학문평가기관으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수의임상 평생교육과 관리 체계 구축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대비한 1200개소 산업동물수의사의 진료 질 향상을 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임상교육을 시키겠다는 농식품부의 계획과 연계해 축종별 임상교육체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 수의사회 역량 강화, 권익보호에 앞장서**

수의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도 추진된다. 임직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물론 분회 조직강화를 통한 회원 찾기 운동, ‘대한민국 수의사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한 수의사 역량 결집과 위상강화, 대한수의사회 자료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련 등이 구체적인 사안들이다.

이밖에도 애완동물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막아내기 위한 ‘애완동물진료 부가세 과세 반대 현수막 달기 운동’과 ‘100만인 서명운동’ 등의 반대운동을 주축으로 반려동물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노력, 공무원 수의사 수당 현실화 등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추진을 통해 대한수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안희경기자(nirvana@afl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0년 1월 11일



수의사들 구제역 조기근절 위해 앞장선다

✦ 전국 임상수의사에 환축 조기 발견 및 신속 보고 당부

대한수의사회를 주축으로 한 전국의 임상수의사들이 최근 발생한 구제역 조기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제역 발생사실을 발표하자 이 사실을 16개 시도수의사회 및 7개 산하단체와 전국 임상수의사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조기에 환축을 발견 및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수의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의 구제역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서한을 통해 “이번 포천 젓소농장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방역당국은 신속하게 방역대를 설치하고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가축 309두(소 264두, 염소 45두)에 대한 살처분을 8일 새벽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향 후 상황 전개가 미지수인 만큼 일선 수의사들은 구제역 환축 조기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상 축 발견 시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 가축전염병임을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일반국민들에게 주지시켜 불필요한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구제역 발생으로 말미암아 국내 축산물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각시도 지부를 통해 농가들에 대한 방역교육에도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번 구제역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포천동물병원 원장 길광철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해준데 대해 치하와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추후 표창하기로 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0년 1월 11일



“수의사, 구제역 방역업무 빈틈없도록”

✦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 수의방역 역할 중요성 강조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수의사들이 구제역 방역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SOP 교육에 힘쓰는 한편, 앞으로도 구제역 조기발견과 신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5일 포천의 구제역 발생현장을 방문해 방역관계자의 수고를 격려한 데 이어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임상수의사들을 찾아 방역복 1000벌을 전달했다. 정영채 회장은 이번 구제역 최초 신고가 수의사에 의해 제기된 만큼 수의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의사회는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직후에 16개 시도수의사회 및 7개 산하단체와 전국 임상수의사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구제역 조기발견과 신고토록 조치한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확산의 매개체로서 수의사가 지목된 것에 대해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사를 통한 감염으로 단정짓기는 무리다. 수의사의 방역활동이 위축될까봐 우려스럽다”며 일부언론의 보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1월 18일



축산단체 행사 줄줄이 연기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단체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3일부터 계획된 원유가격산정체계 관련 여론수렴 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진흥회는 설명회를 연기한 대신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 18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양돈수의사회도 1월에 예정돼있던 수의양돈포럼과 총회를 연기했다. 양돈수의사회는 수의사들이 질병 최접전에 있는 만큼 1월 중 모든 공식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예정돼 있던 낙농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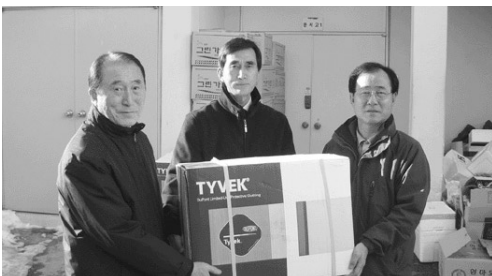


금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 선거로 대체된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구제역발생으로 낙농가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만큼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편에 의한 투표로 자조금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0년 1월 18일

“악성전염병 예찰·방역, 일선 수의사 역할 중요”

▶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 강조...구제역 위험지역에 방역물품 전달도



정영채 회장(왼쪽)이 서동기 포천시 부시장에게 방역물품(방역복)을 전달하고 있다. 가운데는 노천섭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정영채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포천시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관계관들을 격려하고, 현장 수의사들에게 앞으로 해동과 더불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예찰로 조기발견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재난 시에는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방역활동에 필요한 방역복 1천벌과 방역물품을 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포천시·연천군·동두천시 등 위험지역 개업수의사들의 방역활동과 긴급한 진료에 쓰이게 된다.

한편 정 회장은 최근 언론에서 수의사가 질병을 전파한 것으로 보도한데 대해 "역학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신중하게 발표돼야 함에도 사전에 불확실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지적 했다.

이어 "과거 가축전염병은 농장을 출입한 사람은 물론 집유, 사료, 동물약품, 가축 및 가축분뇨 운반차량 등과 특히 떨어소(돼지 등) 거래 등 시장 밖에서의 가축거래, 그리고 축산농가의 집회 등에 의해서 전파된 사례가 많았으므로 좀 더 폭넓은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히 “세계적으로도 악성가축전염병의 발견은 축주와 임상수의사를 비롯한 예찰인력이 중심에 서 있다. 최초 발견신고자를 표창·격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마치 수의사가 구제역을 매개전파한 것처럼 보도돼 일선수의사들의 조기발견과 신고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1월 20일

 **확산방지·조기 진화 ‘밤낮없는 총력전’**

+ 구제역 방역 일선현장에서선



검역원(위)과 포천시청(아래)에 마련된 방역대책 상황실은 현장점검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지치고 힘들다.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이다.” 며칠 째 밤을 지새운 까닭에 방역요원 얼굴은 초취해 졌지만, 사명감만은 여전히 넘쳐났다. 만에 하나라도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다. 그리고 신속한 방역과 조치, 진단 등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축산발전 초석이라고 스스로 각오를 다시한번 다잡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포천시청, 포천축협 등 구제역 방역에 임하는 기관은 숨가쁘게 돌아갔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고 있는 구제역 일선방역현장을 둘러보며 구제역 등 무섭고도 무서운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본다.



“방역전선 빈틈없다” 연일 긴장감 고조
방역인력 외부와 단절 · 새우잠 자며 24시 비상태세 만전
민-관 합동 예찰 · 경제 · 소독 · 지도 등 차단방역 ‘사력’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대책상황실은 24시간 늘 긴장상태다.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즉각 역학조사반, 시료채취조 등에 출동명령을 내린다. 각 시도 방역대책상황실과 연계업무를 수행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진단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살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날마다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수시로 걸려오는 현장문의에 전화기를 놓을 틈도 없다.

방역대책상황실 근무자는 38시간을 일하고, 10시간 동안 집에 다녀올 시간을 얻는다. 월요일 오전 9시에 출근했다면 다음날인 화요일 오후 11시에 퇴근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시 수요일 오전 9시에는 상황실에 나와야 한다. 그야말로 옷 갈아입을 시간 밖에 없다.

종합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임경종 검역원 질병관리과장은 “질병발생 초기에는 아무래도 방역조치가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 기술지원을 통해 혼선을 막고, 빨리 시스템을 정착토록 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설명했다.

진단업무를 하는 병성감정형청감사반 역시 연구실 또는 사무실 한켠에 두고 있는 간이침대를 친구 삼고 있다. 의심축 신고에 대비해 상시 진단체계를 구축해 놓고, 출동대기 태세다. 예방약 수급관리 업무도 담당한다. 특히 정밀검사를 위해 진단실에 들어가면, 1주일 이상 외부인력과 절대 면회금지다.

조인수 해외전염병과장은 “진단결과는 한시 오차도 없다. 모든 진단에 최신기술과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다만, 너무 서두르게 진단결과를 바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역학조사반은 의심축신고와 동시에 현장으로 출발한다. 역학조사반은 실의에 빠진 농가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충이다. 농장주들이나 종업원들이 제대로 답변해 줄리도 만무하고, 이리저리 사실을 캐내느라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면 2~3주는 집에 돌아가기는 힘들다. 잠은 농가 한켠에서 쭈그려 자기 일쑤고 밥을 굶는 것도 다반사라고 한다. 추운날 김밥 한줄 사가지고 수 킬로미터를 걸어 농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인력보강이라든가, 처우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상진 역학조사과장은 “21일간 외부인과 접촉이 금지되다보니 여관에 의지하고는 하는데 여관에 서도 소독약을 듬뿍 뒤집어 쓴 역학조사반을 반겨주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냈다.

*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소장 김만중) 직원들은 현재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구제역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가축방역관 30명과 수원소재 제1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원된 가축방역관 50명을 긴급 투입해 혼신의 힘을 다해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25건 중 총 5건이 양성으로 판정된 가운데 그동안 우제류 농가 37곳에서 총 3천328두를 살처분했다. 또한 농장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오염물을 5일 이상 꼼꼼히 청소, 매물, 소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구제역의 확산 및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의심축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위험지역(125농가)에는 3일내 1차 예찰을 완료한 후 매일 유선예찰을 실시하고, 경계지역(749농가)은 10일내 1차 예찰 완료 후 매일 유선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역학관련 농가(655농가)에 대하여도 매일 유선예찰하고, 유선예찰시 의심농가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구제역으로 의심될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 의뢰하여 판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농장 내 가축방역관 2명을 상주시키고, 현장통제소에도 가축방역관 2명을 배치시킴으로써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차단방역을 위하여 연구소와 시군, 축협, 민간업체 등이 연계된 민관합동 시스템을 가동하여 지역별로 분담하여 소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6개 시군 43개소 이동제한 통제초소에 배치되어 있는 근무자들에게 근무요령과 소독요령 등 방역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포천시청

포천시청(시장 서장원)은 시청내 상황실을 설치하고 서장원 시장을 중심으로 구제역 확산방지와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생당일 발생지역에 3개소의 교통이동 통제소를 설치해 즉각적인 초동대처에 들어갔다.

또한 800여 포천시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24시간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가축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19개소의 교통이동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회단체 등의 참여하에 연인원 2천500명이 동원돼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초소별 방역약품, 생석회 등을 살포해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9개 초소외에 포천시 시군간 경계에도 인접시군의 협조하에 5~6개소의 가축 이동통제 초소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포천축협장 선거를 연기하는 등 각종 모임, 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은 외부출입을 자제해 개별농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이 의심되는 가축은 발견 즉시 구제역 방역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더 이상의 구제역이 발생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수차례에 걸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소가 신고돼 검사 결과 연이어 음성으로 판정되는 등 진정기미가 보이고 있음은 초동대처에 철저를 기하고, 24시간 방역 비상체제 유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19개 교통이동 통제초소 운영...포천축협 연인원 300명 투입

* 포천축협

포천축협(조합장 양기원)은 지난 7일 포천시 창수면 소재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구제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했다.

또한 농가 방문 중단과 아울러 포천시와 협력하여 방역통제소를 설치 운영했다.

발생농가 및 의심축 확인농가에 대한 살처분 및 현장 잔재물 처리 작업에 많은 직원을 동원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포천시 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발생현장 및 오염지역의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위험지역 내 사료공급과 방역차량을 이용한 방역 및 방역통제소 운영과 지원에 연인원 300명의 직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조합원에게 조합 자체예산으로 방역약품 및 생석회(천포)를 신속히 지원했고 농장방역 철저 및 가축이동제한과 타인과의 접촉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자를 1천838명의 조합원에 발송했다.

아울러 1월 21일 예정이었던 조합장 선거도 구제역 확산방지 차원에서 포천선관위에 조합장 선거 연기를 수차례 요청하여 구제역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11일로 연기했다.

특히 경계지역에 포함되는 농가보호를 위해 가축출하 및 정부수매에 대비한 가공물량 조정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축산분뇨 처리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김길호 · 김영길(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1월 25일

 **“수의사 전문영역 확대 역량집중”**

+ 신년인터뷰/ 정영채 대한수의사회 회장



“세계 진출 위한 교육·국제협력 사업 힘쓸 것”
“수의사처방제 시행시 생산능가에 더 큰 이익”
‘수의학교육인증평가원’ 설립...MRA 도입시 기여
정영채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차 있다.
정 회장은 대한수의사회 회장직을 맡은 지 벌써 6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할일이 많다”고 했다.

그는 “수의사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좀더 넓고 전문화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수의사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화에 따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맹활약하는 수의사 배출을 겨냥, 교육과 국제협력 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수의사라고 해서 진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 위생검역, 인수공통전염병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 종종 로스쿨에 합격, 새 영역을 개척하는 수의사를 볼 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 공직사회 수의과학 분야 넓혀야

그는 특히 공직사회에 수의사들이 적극 노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까운 대만만 보더라도 수의사 4천500명 중 3천명이 검역이라든가, 식품위생 등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제외하고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고작 20여명만이 근무합니다. 수의사 자리를 넓혀 주어야 합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수산직 공무원으로 6명의 수의사가 채용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로 말산업을 제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년전부터 수생동물 심포지엄과 말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연수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수생동물과 말산업이 어엿한 수의사 활동영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일선현장 예찰 · 방역 ‘중책’

정 회장은 수의사 역할과 위상은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번 구제역 신고만 보더라도 수의사에 의해 최초 신고됐고, 이와 더불어 구제역 조기종식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그는 “가축전염병 예찰에는 수의사가 중심에 서 있다. 발견신고자를 표창 ·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확실한 정보가 유출돼 일부 언론이 수의사를 마치 질병전파 매개체로 보도하는 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의사 활동이 위축될까봐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정 회장은 이에 따라 최근 포천시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복 등 방역물품을 수의사들에게 전달하고 앞으로도 질병 조기발견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국가재난 시에는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 좀더 능력있는 수의사가 각광받을 것입니다. 배움에 게을리해서는 아무리 이름난 수의사라고 해도 설자리가 없습니다. 처방제를 자칫 수의사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처방제는 생산농가에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 회장은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농가인식이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다. 치료가 빠르고, 비용도 줄어 든다”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약사회 등 관련부처 및 단체와도 어느정도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는 주의 동물약품 등 일부품목을 대상으로 처방제가 실시될 예정이다”며 “대한수의사회는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수의사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인재양성 교육 토대 마련 심혈

정 회장은 대동물 수의사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대동물 수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에서 가르칠 교수조차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염려했다.

“전북대, 충남대, 서울대 등에서 대동물 수의사 양성에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 교육 등에서 수의사 관심을 이끌어낼 메리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배출되는 수의사의 지식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수의학교육인증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 회장은 “평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력의 수급조절,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 격상에 기

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또한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수의사 면허 상호인정(MRA) 도입시 우리나라 수의학 교육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2010년을 도약의 해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수의사의 날, 해외 수의봉사 활동, 자료 DB 구축, 임상회원 고충처리 사례 홍보 등 신규사업을 내걸었다. 계속 이어오고 있는 공무원 수의사 수당현실화,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동물보호법 관련 교육, HACCP 지도사업 등도 지속해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2011년 세계소동물 수의사대회,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 등 국제사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회원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고충 해결에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수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수의사와 수의계 발전에 남은 열정을 모두 쏟아부을 것입니다. 국민먹거리, 안전식품 제공, 공중보건 지킴이로서 수의사가 가는 길에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1월 27일



“구제역 피해보상 소홀함 없어야”



구제역 방역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에 정·관계 인사들이 방문,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를 대동하고 경기도 포천시청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 구제역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살처분과 이동통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신속히 지원해 농가경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1월 27일



“구제역 근절 · 피해지원 총력경주 만전 기해달라”

+ 정운찬 국무총리, 종합대책본부 방문 지시



정운찬 국무총리(사진 오른쪽)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대동하고 포천시 구제역종합대책본부를 찾아 방역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포천시청 구제역 종합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날씨가 풀려 기온이 올라가고 설 명절 민족대이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 전파력이 강한 구제역의 근절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가축 사육환경과 검역·검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동행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과 이동통제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피해보상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의 경영 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0년 1월 29일



구제역 조기 진압 · 근절 최선 당부

+ 정영채 수의사회장,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 방문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달 21일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정영채 회장은 “구제역과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을 사람의 힘으로 막겠다는 것은 마치 그물로 바람을 막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가용한 모든 방법과 지혜를 모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사진 오른쪽)이 검역원 임경중 구제역방역 대책상황실장(질병관리과장)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접국인 중국에서 계속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중국에 대한 국경검역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0년 1월 29일

 **애완동물 진료 부가세 부과 방안 일단 철회**

+ 기재부 입법예고 ‘시행령 일부개정안’서 내용 제외

“이달 중 국회서 종합적 부가세 관련 재논의 예정”

애완동물(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이 일단 철회됐다.

지난달 13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용이 빠졌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시행령 개정추진이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이달 중 종합적인 부가가치세 논의는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와 애완동물 애호가 등은 부가가치세 부과 추진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부과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현수막 달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특히 동물병원은 경영이 많이 어려운 실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10%의 진료비 인상이 반려동물 산업의 위축을 불러오고, 동물진료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아직은 두고봐야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애완동물 진료 부가가치세가 빠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2월 1일